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re		<b>보도자료</b>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2024. 11. 15.(금) 08:00		총 6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24. 11. 15.(금) 08:00	담당기관	주영한국문화원		

**주영한국문화원 제 19회 런던한국영화제 폐막**  
**개막작 빅토리아 · 폐막작 대도시의 사랑법 전석 매진**  
 - 김혜영, 김다민 감독 여성 포럼 참석

주영한국문화원(원장 선승혜/이하 문화원)이 개최하는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London Korean Film Festival)가 1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11월 13일(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3일(수)에 박범수 감독의 '빅토리아'와 함께 개막한 영화제는 뜨거운 관심 속에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3천5백여명의 영국 관객을 맞이했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한국 미학의 새로운 미래는 바로 한국 영화를 진심으로 몰입하여 보는 영국인들의 눈빛과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영화가 저마다 쌓아온 열정의 축적이 만들어낸 감동을 생생하게 전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런던한국영화제의 개막작으로는 박범수 감독의 '빅토리아'가 상영됐다. 개막식에는 '빅토리아'의 박범수 감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국 런던 시내 BFI 사우스뱅크 (BFI Southbank) 대극장 450석 상영관의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개막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열렬한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지며 열띤 호응이 이어졌다. 박범수 감독은 “좋아하는 도시인 런던에서 '빅토리아'를 상영하게 되어 큰 영광이다. 영화를 입히는 태도가 진지한 영국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영화제는 스페셜 포커스로 <여성 영화(Women's Voices)>를 선정해 15년간의 한국 여성 감독들의 활약을 선보이는 작품 11편을 상영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의 김혜영 감독과 '막걸리가 알려줄거야'의 김다민 감독이 런던을 방문해 관객과의 만남을 가졌다. 김혜영 감독은 “극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는데, 최고의 관객분들이었다.”라며 상영을 마친 소감을 전했다. 김다민 감독은

“다양한 입장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셔서 신기했다.”며, 막걸리 키트를 준비해 질문하는 관객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또한 영국영화협회(BFI)와 공동으로 한국 여성감독에 주목하는 포럼을 최초로 영국영화협회에서 진행했다.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 김혜영 감독과 김다민 감독이 패널로 참석해 킹스컬리지 영화과 최진희 교수와 함께 한국 영화계에서 여성 영화인의 작품 활동을 되짚어 보고, 여성 감독으로서 본인의 경험 등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혜영 감독은 “여성 감독이기 때문에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믿는다. 큰 작품 뿐만 아니라 여성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장르들도 많이 선택해서 시도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다민 감독은 “일반적인 감독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르적인 작품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3일 진행한 폐막식에는 이연희 감독이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영국 관객들과 만났다. 이연희 감독이 레드 카펫과 무대 인사,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450석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특히 '대도시의 사랑법'은 티켓 오픈 3일 만에 전석 매진되었으며, 상영 당일에도 취소표를 기다리는 현지 관객들이 대거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영국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었다. 상영 후에는 영화 저널리스트 팀 로비(Tim Robey)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이연희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했다. 이연희 감독은 “영화를 본 관객들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아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 이런 자리를 통해 더 힘을 내어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런던한국영화제는 영국의 영화 최대 기관인 영국영화협회 (BFI, British Film Institute)와 주영한국문화원, 한국영상자료원이 협력해 진행하는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 기획전의 일환으로 영국 런던 BFI 사우스뱅크(BFI Southbank) 극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특별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2월 16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게임 시즌 2의 에피소드 1회를 사전 공개하는 프리뷰 행사를 영국영화협회(BFI) 사우스뱅크 극장에서 영국 최초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영한국문화원 이은지 영화 담당자는 “올해 런던한국영화제와 <시간의 메아리> 특별전을 영국영화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상영 행사가 조기 매진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영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영화 상영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붙임1

###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 개요

#### □ 행사 개요

- 행사명 : 영국영화협회(BFI) 기획전 -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시네마 (Echoes in Time: Korean Films of the Golden Age and New Cinema)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 12월 31일(화)
- 장소 : 런던 BFI 사우스뱅크 극장
- 주최 : 영국영화협회 (BFI, British Film Institute)
- 협력 : 주영한국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 프로그램 : <1960년대: 황금기>, <1990-2000년대: 뉴 시네마>, <가족> 등 42편의 한국영화
- 부대행사 : <관객과의 대화>, <토크 행사> 등 부대행사 계획

## 붙임2

###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개요

####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London Korean Film Festival 2024)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 11월 13일(수)
- 장소 : 런던 BFI 사우스뱅크 극장 및 ICA, 씨네 루미에르 극장
- 주최 : 주영한국문화원
- 후원 : 영화진흥위원회
- 프로그램 : <개·폐막전>, <2023-24년 화제작: 시네마 나우>, <여성 영화>, <스페셜 스크리닝> 등
- 부대행사 : <관객과의 대화>, <포럼> 등 부대행사 계획

붙임3

‘시간의 메아리: 한국영화의 황금기와 뉴 시네마’ 상영작  
리스트

부문	상영작 (감독)
1960년대	하녀 (김기영)
	오발탄 (유현목)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신상옥)
	여관사 (홍은원)
	고려장 (김기영)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만희)
	마의 계단 (이만희)
	춘몽 (유현목)
	살인마 (이용민)
	갯마을 (김수용)
	위커힐에서 만납시다 (한형모)
	안개 (김수용)
	황혼의 검객 (정창화)
	1990-2000년대
접속 (장윤현)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조용한 가족 (김지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이명세)	
쉬리 (강제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김태용·민규동)	
박하사탕 (이창동)	
플란다스의 개 (봉준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류승완)	
반칙왕 (김지운)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와이키키 브라더스 (임순례)	
올드보이 (박찬욱)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 (이재용)	
가족	호피와 차돌바위 (신동헌)

붙임4

‘제19회 런던한국영화제’ 상영작 리스트

부문	상영작 (감독)
개막작	빅토리 (박범수)
폐막작	대도시의 사랑법 (이연희)
시네마 나우 (Cinema Now)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엄마의 왕국 (이상학)
	세입자 (윤은경)
	미망 (김태양)
	301호 모텔 살인사건 (연제광)
	백수아파트 (이루다)
	장손 (오정민)
	헨섬가이즈 (남동협)
	여성 영화 (Women's Voice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김혜영)	
딸에 대하여 (이미랑)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부지영)	
도회야 (정주리)	
모래바람 (박재민)	
비밀은 없다 (이경미)	
벌레 (명세진)	
이씨 가문의 형제들 (서정미)	
헨젤: 두 개의 교복치마 (임지선)	
순간이동 (권오연·남아름·탄자와 치푸미·노카 나나)	
스페셜 스크리닝 (Special Screening)	외계+인 2부 (최동훈)